



Weekly Keyword

“드디어 반등이다”

로봇 수요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일본 야스카와의 로봇 수주가 1Q24 실적에서 전년비 12% 증가하며 반등 기록. 미주에서는 자동차 및 에너지, 유럽에서는 EV 향 로봇 투자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. 반도체 등 설비투자 회복 지연 영향으로 모터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의 수주는 전년비 1% 감소한 점은 아쉬우나, 로봇이 자동화 설비 중에서는 가장 견고한 수요를 증명한 점은 긍정적. 최근 로봇 수요의 동행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공작기계 수주 데이터에서도 전년비 수주액 반등 추세 확인. 연초 주요 로봇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하반기 이후는 고객사 재고 조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, 하반기 이후 로봇 업황 개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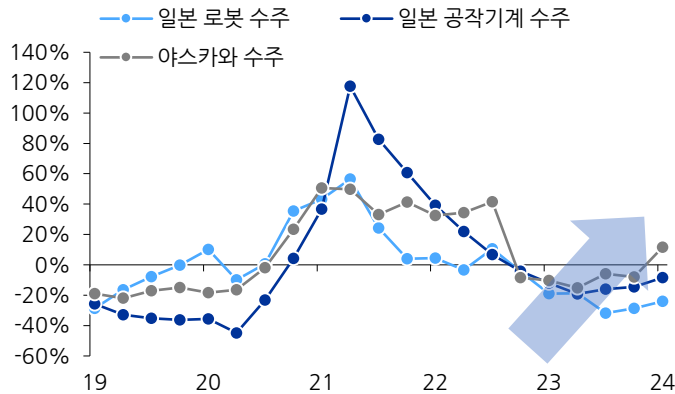


로봇 산업 주요 이슈 & 스터디 시리즈(45)

[드디어 반등이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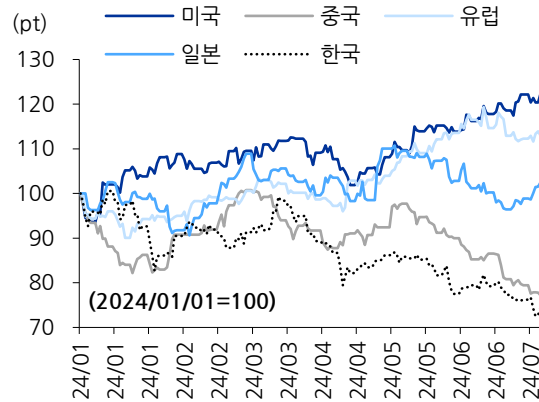
로봇 수요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일본 야스카와의 로봇 수주가 1Q24 실적에서 전년비 12% 증가하며 반등 기록. 미주에서는 자동차 및 에너지, 유럽에서는 EV 향 로봇 투자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. 반도체 등 설비투자 회복 지연 영향으로 모터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의 수주는 전년비 1% 감소한 점은 아쉬우나, 로봇이 자동화 설비 중에서는 가장 견고한 수요를 증명한 점은 긍정적. 최근 로봇 수요의 동행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공작기계 수주 데이터에서도 전년비 수주액 반등 추세 확인. 연초 주요 로봇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하반기 이후는 고객사 재고 조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, 하반기 이후 로봇 업황 개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판단.

Key Chart: 주요 수주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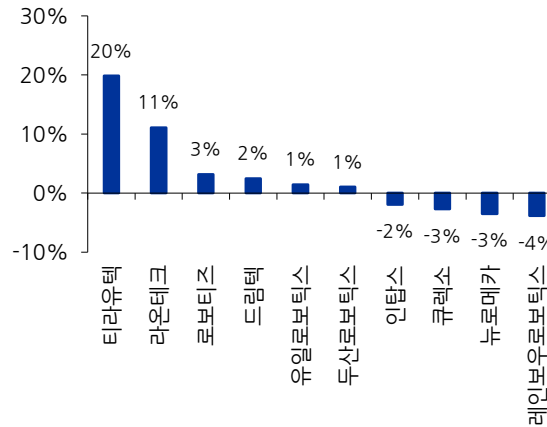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JARA, Yaskawa, 유진투자증권

글로벌 로봇 시총 변화 추이



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



자료: Quantwise

로봇 주요 뉴스(07/01~07/07)

[산업용 로봇]

- 뉴로메카, 20억 규모 배터리팩 생산라인 자동화 수주
- 유진로봇, 2차전지 라인에 31억 규모 AMR 공급 계약
- LG전자, 클로이봇 구독 서비스 시작. 월 66만원 수준
- 로보티즈, 실외자율주행로봇 아파트 실증 성공 마무리
- HL만도, 인천공항에서 발렛파킹 실증 운영 추진 예정
- 엔젤로보틱스, 로봇기술 선형연구센터 설립 완료
- 아이오크롭스, 스마트팜 자율주행로봇 헤르마이 출시
- 피앤에스미캐닉스,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상장 연기

[기타(정책/부품/SW)]

- 정부가 3.5조 규모 AI 정책금융 조성해 로봇 등 지원
- 모건스탠리, 휴머노이드 주목 기업으로 네이버 선정
- GXO로지스틱스, 애질리티로보틱스와 로봇 계약 체결
- 생추어리시, BDC캐피털 및 인비씨로부터 투자 유치
- 서브로보틱스, 배달 영역 LA 코리아타운까지 확장
- 중국 창장국가혁신센터, 휴머노이드 칭룽 공개
- 푸두로보틱스, AI 탑재 서빙로봇 일본 진출
- 중국 로봇 관절기업 SWT, 올해 생산액 1억위안 기대
- 중국이 AI 논문 및 특허 건수에서 미국을 앞서
- 야스카와, 1Q24 순이익 21% 감소, 수주는 1% 감소
- 독일, 로보센터(Robotics Insitute Germany) 설립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역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